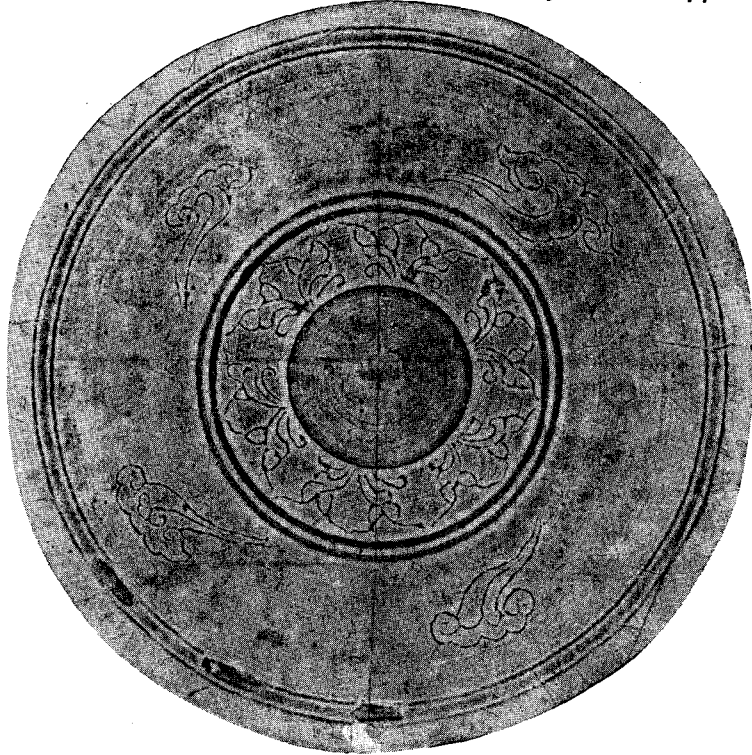


梁山 內院寺 所藏、
大安七年銘

高麗禁口에 對하여 (資料)

丁 仲 煥



지난 九月中 某人을 통해 梁山 通度寺에서 禁口가 出土되었다는 消息을 들은 바이나 그저 尋常하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뒤 얼마 지나 10月 初旬頃 마침 서울에서 東國大學校 出身의 金敬泰氏가 來訪하였기에 문득 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가 보지 않겠느냐 하였더니 快히 承諾하여 그 다음 날 아침 長箭洞인 내 집에 모여 같이 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날 通度寺行은 完全히 虛行이 되고 말았다. 通度寺 宗務所에 가서 물으니 아무도 仔細히 모르고 老僧 한 분이 그것은 通度寺가 아니고 本來 通度寺 末寺였던 千聖山 內院寺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곳으로 가 보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날은 이미 午後 3時가 지나서 內院寺까지 들렀다가는 歸釜할 수 없겠기에 後日을 期約하고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 뒤 日刊新聞紙에 이 事實이 傳해졌다. 그래서 이미 報告가 되고 調査가 되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얼마 동안 내 일도 바쁘고 하여 無心히 지나버렸다. 마침 이 週日은 釜山大學校 開校 15週年 記念行事로 며칠 동안 歷史參考品 展示關係로 하여 奔走하던 中 釜山 金東鎬先生(考古學에 趣味를 가진 某 中學校 教師)이 展示品을 參觀코자 왔기에 생각난 듯이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같이 가자기에 約束하니 그것이 11月 7日 下午였다.

11月 8日 아침 7時頃 金先生이 왔기에 집에서 간단한 아침 食事を 마치고 出發하였다. 溫泉 入口

에서 彦陽行 버스를 탄 것이 8時 30分경 약 2時間 後에 內院寺 入口인 “중방내”에서 下車, 步行으로 約 2km 가니 溪水가 兩分된 三角地點에 到着, 그곳에는 溫泉에서 왔다는 老婆 한분이 平安道 사투리 그대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 분은 술 菓子 香燭 等 參拜客을 爲한 假店(假店)을 보고 있었다. 假店 위에는 寫眞師가 3名 待機하고 그 위에는 새로 집을 짓고 있는데 懸板에 益盛庵이라고 하였기에 물으니 절을 짓고 있다한다. 앞에는 兩溪가 合水하는 三角地點에 山靈閣이 있었다. 잠깐 쉬어서 다시 內院寺로 向하니 到着한 것은 11時 50分경.

住持스님을 찾으니 釜山 가셨다한다. 말끔하게 새로 지은 절에 몇 사람의 女僧밖에 보이지 않는다 法堂에 들어가서 미리 準備한 香을 올리고, 나와서 나이 많은 女僧에게 來意를 말하니 서슴지 않고 다락으로 가서 禁口를 내어왔다. 所望을 達成하였다고 생각하니 기뻐다. 첫눈에 그것은 高麗時代의 것이라고 느껴졌다. 아담한 모양과 아름다운 紋樣이 무척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二

禁口를 받아 座席위에 놓고 먼저 銘文을 살폈다. 側面에 一列로 陰刻된 銘文이 發見되었다.

大安七年辛未五月日棟梁僧貞妙次知造納金印寺飯子一口重二十斤印

大安七年 辛未는 高麗 宣宗 8年 即 遼 道宗 太安 7年 辛未로 西紀 1091年에 해당한다. 禁口의 表徑은 38.5cm의 小形一般型으로 側幅은 8cm 口緣幅은 3.3cm, 口徑은 34.4cm이다.

表面은 三重圈을 이루고 內圈은 素文이고 中圈은 여섯개의 寶相花文을 陽刻하였고 外圈에는 네개의 雲花文을 서로 相反되는 位相으로 역시 陽刻하였는데 雲花文은 같은것이 아니고 各各 다르게 그리면서 아름다운 調和를 取하고 있다. 外圈上側 二重線 帶間에는 세개의 突起를 두었고 線帶는 外中 모두 複線으로 되어 있다. 側面上部(突起가 있는곳)는 太線上에 二耳가 있다. 口緣幅 上에도 複線圈을 돌렸다.

小形の 完全한 禁口로 그 形態가 端正 雅好하며 紋樣도 極히 高尚한 珍品이다. 全體가 아담하고 品位가 있었다.

寫眞과 榻本 등 할 일을 급히 마치고 老僧에게 이 禁口의 出土處와 그 來歷을 물은 뒤 所重하게 保管할 것을 몇번이나 付託하였다.

때마침 大學院長 鄭壹千 博士와 神父 1名이 天主教 信者들과 같이 왔기에 歸路는 이분들의 버스를 便乘하기로하고 이 禁口가 出土하였다는 올때 잠깐 隣 가개위에 짓고있는 益盛庵을 가 볼 생각으로 金先生과 먼저 內院寺를 떠나왔다. 下午 2時 50分경.

三

益盛庵에 도착하니 下午 四時경, 여기도 女僧이 살고있는곳, 女僧몇분이 落成式 準備에 바빠하고 있다. 來意를 말하니 젊은 女人(僧服은 입었으나 有髮한 20대의 사람)이 案内하여 절집에서 東北 約 10m가량 山으로 올라가 그곳에 이 절 食水를 하기 위하여 우물을 파는 工事中 約 2尺정도 땅을 파니 이 禁口가 나왔다고 한다. 그곳은 우물을 파는만치 一帶가 濕氣있는 곳이다. 그것이 出土된 것은 陰 7月下旬경 이라고 한다. 이곳의 來歷을 물으니 옛날 절터라고 하여 집터와 우물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고려시대의 것으로 인정되는 陶磁器 破片和 瓦當破片들이 이곳 저곳에 보였다. 그중에는 麗末 鮮初로 보는 粉青繩籬文磁器(三島手) 破片도 많이 보이며 그 破片들을 몇개 주어놓았다. 이 破片들로 미루어보아 이곳에는 高麗初 以前부터 있던 절이 李朝 어느때가 廢寺되곤 禁口도 땅에 묻히고 만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절 이름은 禁口에 새겨진 金印寺 바로 그것이였을 것임을 쉽게 짐작 할 수 있었다. 젊은 僧服女人은 寫眞을 拒否하였으나 老스님은 우리와 같이 禁口 出土處에서 寫眞찍는 것을 許諾하고 老스님은 또 우리에게 山靈閣의 由來와 傳說을 말씀하여 주었다. 그것은 山神과 元曉大師와의 關係를 表現한 山靈閣 西壁에 그림의 說明이기도 하였다.

鄭博士 一行이 당도하여 기다리던 버스를 이곳에서 便乘하고 歸路에 올랐다. 出發時刻은 下午 4時 50分경.

<筆者 釜山大學校 教授>

×

×

黃壽永氏의 「黃義敦先生 古稀記念 史學論叢」에 掲載한 新羅高麗在銘禁口考에 依하면 이 禁口가 年代上으로 博物館 所藏 咸運銘禁口, 德壽宮美術館 所藏 環岩寺盤子.(咸雍9年) 다음가는 것으로 現在 알려진 禁口 中에서는 셋째가는 것으로, 그 形體美와 紋樣의 端雅함이 此種 遺品中 逸品이라 하겠다.